

# 계란 유통구조 개선 (Ⅲ)

본고는 본회 채란분과 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11월에 열린 제 5 회 전국채란인 대회에서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정주 교수가 발표한 계란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난달에 이어 연재로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 나. 계란 유통구조 개선 대책

### 1) 계란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계란의 가격체계가 불합리하고 신선란이나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란의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를 맡아 수행할 대규모 공영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인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현재 전체 계란 생산량의 17%만이 협동조합 집하장에 의해서 취급되고 있는데 전체 계란 생산량 중 최소한 50% 정도는 공영집하장이 취급할 수 있도록 공영 집하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영 집하장에다가 선별, 세란 및 포장기능은 물론 판매기능까지를 부여하여 집하장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란수집상 및 중간 도매

상은 집하장에서만 계란을 구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자료와 세원의 포착은 물론 시세변동에 따라 종란이 식란으로 둔갑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영 집하장 운영은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양계부를 신설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2) 계열화 사업의 확대 실시

우리나라의 채란 양계산업은 초생추의 수입, 종란의 생산과 부화, 사료 및 가축약품의 조달, 육성계의 사육, 계란의 선별 및 포장, 계란의 판매, 계란의 가공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독자적인 개별경영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

므로 의사결정이 분산되고 경영비가 중복 지출되며, 이윤 중심점도 중첩될 뿐 아니라 경영체가 상호 연결되지 못하여 생산비는 증가하고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며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 진폭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하나의 경영체가 각 단계의 활동을 통합관리하는 계열화 체계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계열화 체계는 육계부문에서 일찌기 도입되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육계 총생산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계열화체계를 정착시키면 육계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하여 닭고기의 생산비를 30% 이상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생산조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란부문에는 계열화 사업이 아직 그 도입 초기단계로서 생산량의 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채란부문의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여 적어도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된 계란은 계열주체에 의하여 직접 유통시키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육계 계열화사업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노하우를 그대로 채란부문에 적용함으로써 육계 부문보다 훨씬 쉽게 계열화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계열화 사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이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이 주로 시설투자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완전 계열화를 고집하고 있으므로 막상 계열주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있다. 따라서 부분계열화를 인정하고 시설의 임대나 운영자



금에도 계열화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민간 유통업체에 의한 계란 집하장(G.P 센타) 육성

현재의 계란유통체계에는 중앙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서 계란 수집상에 의해 80%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계란가격이 상인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되고 담합, 조작 등 횡포가 심하여 양계농가의 피해가 극심할 뿐 아니라 계란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전체 계란 생산량의 2%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 민간 유통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최소한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민간 유통업체는 중 규모이상 농가에서 납품을 받아 슈퍼 등 대량 소비처에 직접 판매하는 유통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민간유통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수적 일 것이다. 그런데 외국산 기계의 리스 자금에는 5% 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으나 국산기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회 균등의 원칙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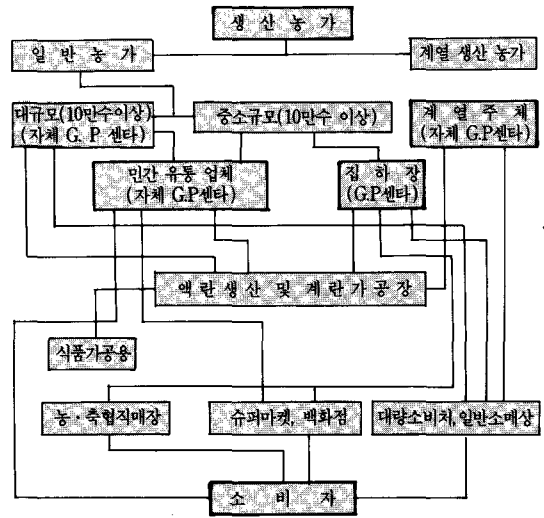
기계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운영자금은 물론 저리의 리스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4) 액란 공장 및 비축시설의 확대

계란은 그 특성상 저장성이 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계란이나 수요의 급격한 축소로 공급과잉된 계란을 처리하는 예비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축시설이나 액란 가공공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이 경기도 오산에 액란 가공공장을 1994년에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일 20톤 규모의 처리능력이 있는 이 액란공장은 조합원들의 체화된 계란을 할란하여 일부는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일부는 냉동저장 시키고 있다.

이 공장은 계란 가격의 하락을 막고 동시에 계란용도의 다변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연간 3~4억원의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액란공장에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첨단시설이 설치되어 전란, 난백, 난황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 공장의 원래 목적이 이익의 극대화 보다는 계란의 수급안정에 있으므로 적자 운영이 그리 문제시 되지 않을지 모르나 양계협동조합원 비율이 30%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30%의 양계인의 출혈로 70%의 비조합원이 가격안정이라는 간접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공차타기”에 해당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액란공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정부차원이나 업계차원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개 단위협동조합으로서 이러한 액란공장을 지탱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액란공장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폐기물로



자료 : 대한 양계협회, 1994

〈그림5〉 개선된 계란 유통체계

처분되고 있는 난각을 일부만 추출이나 사료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식품관리법에서 파란을 할란 원료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풀어주고 대신 할란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파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난각의 내막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할란원료로 쓸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할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가공에 대한 주무부서를 보건사회부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시키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액란공장의 건립을 확대하되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는 가공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도매시장, 집하장, 계열주체, 민간 유통업체에서는 평시 자기 취급물량의 1개월분 이상을 냉장비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가미한 새로운 계란 유통체계는 다음 〈그림5〉와 같다.

### 5) 계란의 등급화 · 표준화 정착

계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량별, 품질별 등급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체계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의 등급은 중량에 의한 등급만 있을 뿐 품질에 의한 등급 기준은 아예 없다.

한편, 미국에서의 계란품질 등급은 AA, A, B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본은 특급, 1급, 2급, 등외의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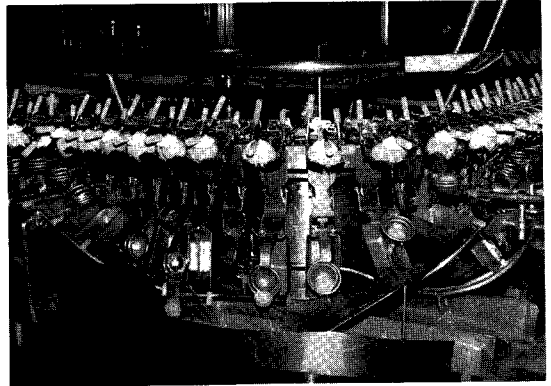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계란의 중량에 의한 등급 기준은 이미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규격이 활용되지 않고 관행으로 내려오는 규격으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중량에 따른 계란의 구분

구분	중량	구분	중량
왕란	70g 이상	중란	47~54g
특란	60~69g	소란	42~47g
대란	54~60g	경란	42g 미만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유통편람, 198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계란의 중량별 규격은 급간격이 불균등하게 설정되어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못한다. 특히, 특란의 경우는 60~69g까지는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관행으로 내려오는 등급 체계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선 생산 날짜로부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계란



개당가격이 아닌 중량과 함께 품질을 고려한 등급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육류는 최근 등급제도를 강력히 추진하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므로 계란도 지금부터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등급제 정착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은 대한양계협회가 1985년 이미 육계 및 계란의 유통규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10년이 가까운 오늘까지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계란의 등급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모든 계란은 G.P센타를 통하여 출하되도록 하고 G.P센타에서 세란과 포장이 이루어진 후 생산 날짜를 명시함으로써 판매처에서 날짜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도록 하는 일 부터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계란의 규격기준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란의 유통규격 및 검사기준을 제정하여야 하고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 검사 및 단속방법을 규정하는 계란의 품질인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상표에 관한 법률이 배제되어 있는 축산법이나 위생처리법에 이러한 상표

표17. 각국의 계란 중량별 규격

(g/개)

등	급	미	국	일	본	유럽연합	한	국
1		68g 이상		70~76		70g 이상		70g 이상
2		61~68		64~70		65~70		60~70
3		54~61		58~64		60~65		55~60
4		47~54		52~58		55~60		48~55
5		40~47		46~52		50~55		42~48
6		33~40		40~46		45~50		42g 이하

자료 : 이규성, 양계산업 육성정책, 대한양계협회, 1994



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여 계란의 상표화를 실시함으로써 계란이 세척되거나 완전하게 위생처리된 후에 포장, 공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6) 계란수급 조절을 위한 기금의 조성, 운용

계란은 저장성이 약하고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과잉생산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장시설이나 액란공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모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생산자 스스로 자조의 정신에 따라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기금이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과거에 축산진흥기금이 정부부처의 용돈처럼 쓰이던 폐단을 과감히 탈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러한 기금조성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계란 판매실적에 따라 개당 1원씩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우리나라 계란 총생산갯수를 80억개로 보고 매년 80억원정도가 적

립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고출연이나 보조가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현재 추진중인 자조금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조금으로 일환시켜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금의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된 민간단체에 의해서 운영케하되 기금의 용도는 계란가격이 생산비의 80%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비의 80% 수준으로 수매비축하고 수매비축에 따른 적자는 기금에서 보전하며, 매년 조성된 기금의 20% 정도는 제품개발, 소비홍보비 등으로 사용하며, 5% 정도는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계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항간의 일방적인 콜레스테롤 유해론을 뒤엎을 수 있는 이론적인 체계정립을 위하여 다른 축산물 생산부문과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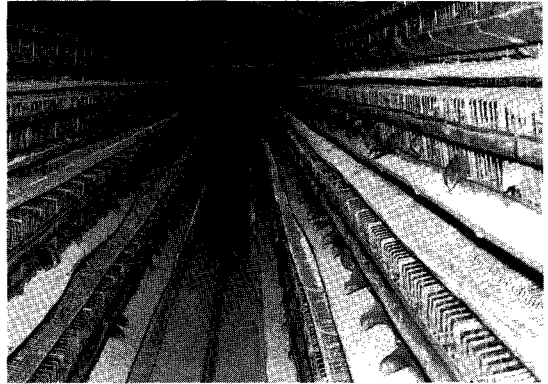
## 6.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계란은 대부분 원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란은 국제간 교역이 어려워 수입개방의 영향을 덜받는 축산물이다. 따라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계란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략 품목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계란생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공영 도매시장의 설치는 물론 계절적인 과잉을 막기 위한 계란 가공 및 저장시설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바 정부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양계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채란양계부문에도 육계부문과 같이 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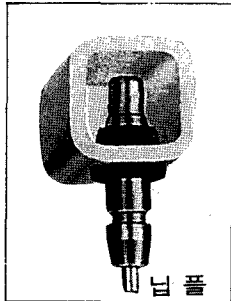
체계를 도입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필요시 생산조절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계인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양계**

**대 탄 생**  
양계, 양돈인을 위한  
납플, 자동안개분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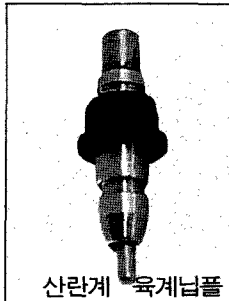
## 납플생산전문업체

**취  
급  
품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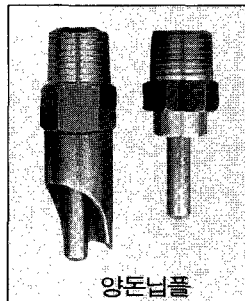
- 양계 납플 : 육계용·산란계용·종계용
  - 양돈 납플 : 모돈용·식송용·자동용
  - 안개분무기 시설 및 노즐, 밸브, 부품판매
- } 제작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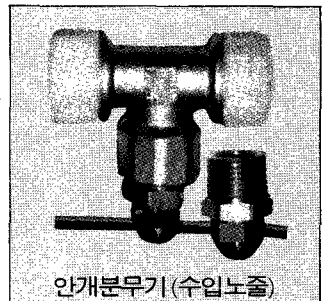
납 플



산란계 육계납플



양돈납플



안개분무기(수입노즐)

# 금도축산

서울·구로구 고척동 103 - 42번지  
고척공구상가 가-B 열 321호  
☎ (02)682 - 7563 (야) (02) 688 - 9353